

제 65 호

연중 제 7 주일  
(출판물 보급 주일)

1974. 2. 24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강 료】

##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안 용 기 신 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교회 출판물 보급을 외쳐야 할 주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소나 양은 먹은 음식을 되새김해서 완전 소화를 시키는데 우리들(?)의 외침은 해마다 되새김을 해도 그저 그런것 같으니 왜 일일까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홍보수단의 질적, 양적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침의 단기적인 효과가 끝내는 "○○체납금 ○○원"으로 변모할까요, 기계적이고 연례적인 소리로만 그칠까요? 외치는 소리가 메아리도 없이 사라지니 소귀에 경읽기란 말이 생각납니다.

“체납금 독촉일랑 없도록 성서줍 사서 봅시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전하는데는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안보입니다. 흔히들 “아는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의술을 모르고 어떻게 병을 고치며 건축을 모르고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모르고서는 주님을 전할 수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지요.

“주님을 모르는신자생활”, “주님을 모르는 전교활동” 무엇이 될까요? 포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포도밭을 경영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결론은 뻔한 일이지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를 꾸려 나갈려해도 모르고는 안되는데 하물며 영혼을 기르고, 병이 나면 고치고, 초가삼간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고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전해야 할 가장 중대하고 어려운 사명을 띤 우리들이 눈뜬 봉사요, 혀는 있으나 병어리요, 귀는 있으나 귀머어리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온갖 잡것으로 꽂 차있다면 나오는 것은 결국 한숨일 것입니다. 무지한 자에게 따라오는 수학적 결론은 한숨 이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매일같이 되풀이 하는 주님과 의 사랑의 대화요, 진정한 신자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표현이요 소원일 것입니다. 결코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거짓말 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불안한 마음을 회절하는 것으로 착각하고서 바치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현대에 이를 주인공은 우리 외에 다른 누가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는 세속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종말에 살고 갑부로 살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살고 거지꼴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 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다같이 반성하고 집에 가져온 서제를 꼭 한번 둘러보고 새로운 결심을 합시다.

<부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주입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나는 당신 자비를 믿으며, 주님의 도우심에 이 마음 크게 기쁘오리니, 갖은 은혜 베푸신 야훼께 찬미드리오리다.

#### (2)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사무 전 26 : 2. 7-9, 경향잡지 P. 51) 주께서 나를 내 수중에 넣어주셨으나, 나는 내 손을 대지 않았다.

□**증계송** ◎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니, 죽음에서 내생명 구하여 내시고 은총과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분. ◎

□**제 2독서** (고린전서 15 : 45-49, 성서 P. 401) 우리는 흙의 인간의 형상을 지녔듯이 그 하늘의 인간의 형상을 또한 지녀야 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너희에게 새 제명을 주노니 내 너희를 사랑하였음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알렐루야.

□**복음** (루가 6 : 27-38, 성서 P. 139)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는 자비로워야한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출판물 보급주일을 맞은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어, 교회 출판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소서 ◎우리...

2. 주여, 우리는 너무나 책을 읽지 않습니다. 특히 성서는 읽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우리를 바로잡아 주소서. ◎

3. 위로자신 성신이어, 성서 번역과 출판물 보급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소서. ◎

✦ 주여 비오니, 당신의 가르침이 현대의 홍보수단을 통하여 널리 널리 퍼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아멘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염성체송** 주님,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나이다.

#### (4) 폐회식

### \* 숲정이 산책 \*



당신은 애처가 이십니까?

—출판물 보급 주일—



□본당 코너□

□신앙인의 상식□

### 노송 성당 신축에 찬조(贊助) 답지(逕至)



조 해 형 (베드로)

노송성당 신축에 본당교우는 물론 여러 성당에서 속속 신축기금을 회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리스찬은 자기 개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나위 없읍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공전이 노송 원두에 하늘 높이 새로 서게 되는 것은 우리 4지구의 역사적인 기쁨이며 우리 교우들의 찬란한 영광이 아닐 수 없읍니다.

덕진 본당입니까? 중앙 본당입니까? 복자 본당입니까? 천동 본당입니까? 서학 본당입니까? 노송 본당입니까? 어느 교우님께서 이름도 소속본당도 밝히지 않고 일금 5만원을 보내오셨읍니다. 또 어느 교우님께서 일금 4만원을 역시 익명으로 보내오셨읍니다. 하느님께서만은 그 이름과 그 소속본당을 알고 계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자성당 김인련교우님께서 일금 1,000원을 보내주셨읍니다. 중앙성당 유훈석 교우님께서도 일금 1,000원을 보내주셨읍니다. 덕진성당 김교우님, 천동성당 김교우님께서도 기공식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질인 금전은 인간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신생활의 수단입니다. 영성생활의 도구입니다. 한알의 보리가 썩어서 수많은 새생명이 탄생합니다. 물질의 희생없이 새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사랑과 희생을 바치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하느님의 공전의 주춧돌에, 기둥에, 대들보에 아낌없는 정성을 담읍시다.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생의 예물로 나타냅시다. 그리스찬 공동체의 정신을 다 함께 발휘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항상 교우들과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노송동 본당 사도회장, 전주 동중학교 교장>



### 양형 영성체

박진량 신부

영성체때 신자들이 주의 몸과 피를 다 배령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직하다. 더구나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성찬기도중에)을 생각할 때 양형(兩形)으로 영성체하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째서 빵의 형상으로 된 주님의 몸만을 받아 모시는 것이 상례처럼 되었을까?

동방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이 양형으로 영성체하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있다. 다만 성혈을 땅바닥에 엎지르지 않기 위해서, 또 같은 잔을 여럿이 마시는 불편과 비위생적인 점을 고려해서 성혈을 받아 모시는 때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예컨대, 콤포트 신자들, 에치오피아 신자들, 비잔틴 신자들은 성작에 담긴 주님의 피를 작은 수저로 퍼서 조금씩 받아 마시고, 시리아 신자들은 성체의 한쪽 끝을 성혈에 적셔서 영한다.

서방교회(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함)에서는 13세기 까지 신자들도 양형으로 영성체를 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양형 영성체의 풍습은 차츰 사라져 갔다. 또 그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성혈을 영해주던 풍습도 사라져 버렸다.

트리엔티노 공의회(1545-1563)는 「한가지 형상으로만 영성체를 해도 교리적인 관점에서는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교회가 경우에 따라 유익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양형 영성체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두가지 형태 주님의 몸과 피의 배령은 주교의 판단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에게도 허락할 수 있다. 예컨대 서품자(소품반는자를 말함)가 자기 서품미사 중에, 허원자가 자기 허원미사 중에, 영세자가 영세후에 즉시 거행하는 미사중에 배령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전례헌장 55조)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아주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병자들과 미사 밖에서 영성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빵의 형상으로 된 주님의 몸만을 영해주었다.

「주의 몸과 피는 나를 지키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가톨릭 세타 관장>

### 여학생만을 위한 기숙사

#### 여성의 몸가짐을 닦을 수 있는 시설

공동생활 뜻을 가진 자로써 지방에서 온 여학생 高·大學生 6개월 이상 생활관 생활에 뜻이 있는 학생을 받습니다. 여학생관은 질서있고 규칙적인 생활속에서 정서적이고 가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보조시설

- ※ 아늑한 도서실
- ※ 안락한 휴게실
- ※ 탁구대와 오르간
- ※ 스킨장치와 침대

전주역전 가톨릭 여학생관  
전주시 서송동 601 전화 ㉠ 2955



양 지 쪽



홍 내

김 길 수

지금부터 20~30년전만 해도 신자 가정에서 어린 꼬마들이 신부, 수녀를 가장한 소꿉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사 제의랍시고 흰 담요를 어깨에 두른 꼬마 사내가 미사포같은 천을 쓴 동네 어린 꼬마 제집애들 앞에서 빠꼼살이 미사를 집전하던 모습이 어찌보면 그리도 엄숙했던가, 어느듯 동심의 세계에 젖는다.

어린시절 교리 공부에서 미사는 밀떡(제병)과 포도주의 재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꼬마들은 제의실에 숨어들어가 제병과 포도주를 훔친다. 소꿉놀이 미사의 축제에서 이들은 의미도 모르는 라틴말로 도미누스보비스꿈(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옛꿈스피리투투오(또한 사제와함께)하고 참새처럼 재잘거린다. 가짜 영성체를 영할때의 이들 모습은 천사같기도 하다. 이들 꼬마들은 단지 소꿉놀이 속에서 흥내만을 낸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것을 좋아했다. 교회를 떠나서는 꿈도 이상도 없다고 느꼈었다. 성당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낙원이었다. 아마도 지금 40~50대의 어른들은 이러한 어린 시절에 한없는 향수를 느끼고 있으리라.

오늘의 꼬마들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목적도, 이상도 설정되기도 전에 현대의 배스꿈의 홍수에 방향감각을 잃었다. TV에 나오는 가수들의 품이 무색할 정도다. 라디오의 연속극, C.M, 신문의 도색 잡기, 범죄사건등은 청소년들의 순수한 감정과 이성을 마비시킨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라스킨이 지적한대로 홍보는 「원자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정신의 생명을 살해하고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킨다. 홍내의 단수가 옛날에는 꿈과 낭만의 어른상을 기리던 것이 오늘에는 폭력과 쾌락과 금력의 타락한 이기주의자 상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옛날에는 「주는 기쁨」을 모방하던 오늘날은 「받는 쾌감」을 더 중요시 했다. 주객전도의 혼란이 야기 됐다. 교회는 이러한 가치관의 전복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홍보를 교회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말씀(요한 1장1절)이 출판사의 시고에 썩고있지 않은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무리로 저주받아도 당연하던 말인가? 말씀의 씨앗은 시공을 초월하여 바로 이곳에 살아있는 우리의 기억과 가슴속에 심어진다. 우리가 교회의 각종 출판물 안에서 각각 각색으로 채색된 말씀의 빛을 읽을 때 말이다. (가톨릭 시보 기자)

요십이 (32) 김병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③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강사:김용환 선생)
※ 초보부터 시작, 호평(好評)을 받으며 전주 시내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음.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심 바로서원

\* 이 주간의 성경 \*

- 25(월) 독서(야고보 3:13-18, 성서 P.524)
복음(마르코 9:13-28, 성서 P.96)
28(목) 독서(신명 3:15-20)
복음(루카 9:22-25, 성서 P.151)
26(화) 독서(야고보 4:1-10, 성서 P.525)
복음(마르코 9:29-36, 성서 P.98)
3. 1(금) 독서(이사 58:1-9)
복음(마태오 9:14-15, 성서 P.19)
27(수) 제의 수요일 (단식과 금음)
독서(고린트 후서 5:20-6:2, 성서 P.411)
복음(마태오 6:16-18, 성서 P.12)
2(토) 독서(이사 58:9-14)
복음(루카 5:27-32, 성서 P.136)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토프



子犬분양 (입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②7692(전북동 어은골)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로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②4577)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1.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로 열매맺는 성년 행사

본 교구장이신 김 재덕 주교님께서 성년 행사에 대한 공문(제74-3호)을 통하여 "본당내의 모든 신자들이 하여금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에 총집중케 하며, 특히 단체들(예. 학생회)로 하여금 독서 그룹, 성경 그룹 등을 형성하여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케 한다"고 2월11일 교구 성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2. 교구 대학생 피정 (2월25일 오후 2시-28일 오후6시, 가톨릭 센터)

문의처 : 가톨릭 센터 (전화 ②3498), 회비 : 1,500원

3. 재의 수요일 (2월27일)과 성금요일 (4월12일)은 단식재와 금육재 지키는 날.

금육재 지키는 날-사순절 동안 매 금요일(3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4월 5일)

※ 단식재(대재)지킬 나이...만 21~60세, 금육재(소재) 지킬 나이...만 13세이상

4. 제4지구 전체 월례회 (2월28일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전주시내 각 본당 사도회 상임 위원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소]

[식]

(중양)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복진  
보좌 신부 박창진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연기 (둘째 주일로)
2. 주일학교 자모회 창립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주일 학교 개학 (3월 2일<토>, 개강...3일<일>)
4. 신음조합원에게 특별 의료 혜택
  - ① 치료비...외래10%, 입원 20% 할인
  - ② 치료비 분할 지불 및 보증제도 채택
 상세한 내용은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녀님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장 프리스카 수녀(진해로), 신 마리아 수녀(독일 유학)
6. 신부님 가정 방문(오후7시~10)
  -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전 가족과 면담할 예정임.
  - 25(월)~27(수)...고사, 중앙, 경원동
  - 28(목)~2(토)...중노송동, 태평2가
7. 성지 가지 반납 (재의 수요일)
8. 성심 부녀회 <3. 1(금) 어머니 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42,226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철호

1. 재의 수요일 (단식과 금육-대재와 소재)
  - 27일부터 매일 저녁 미사후 합동 십자가의 길 기도
2. 예비자 교리 (공식 미사 후, 수요일 저녁 미사 후)
3. 출판물 보급 주일
  - ①경향잡지 (월 100원)와 가톨릭 시보 (월 150원)를 한가정에 1부씩 보급하다-사무실에 신청바람.
  - ②성서읽기에 힘써시다.
4. 복자 부녀회 (오늘 공식 미사후)
5. L.M.남성 P. 탄생 (1월21일부터)
  - 뜻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입단 신청하십시오.
6. 3월은 성요셉 성월 (저녁 미사후 공동 성월)
  - 지난 주 미사 463명 (10시-349, 7시-114명)
  - 지난 주 성미 2말 2되 (누계 255말 1되)
  - 지난 주일 봉헌금 14,63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교리반 졸업식(오늘 공식 미사후)
  - 학부형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7시반)
3. 교구 신학생 3명, 독서지와 시종직 품 받음.
  - 3월 2일 광주에서 품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양생동과 우업덕 공소 수류 분당으로
  - 김도마 신부님이 수류분당으로 부임하시어 임지로 본당에 속했던 공소가 수류로 이전됨(2월20일자)
  - ☆ 축 결혼 ☆ (2월25일)
  - 윤용배(바로로)씨와 장정님(누시아)씨
  - 지난 주일 헌금 17,087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노송동 성당 신축 기공식 (3월19일)
  - 교우 여러분께서는!
  - 하느님의 공전을 신축하는데 적극 협조합니다.
2.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 이명준, 박춘근(각 2천원), 이기환(1천5백원), 김태인, 박명준, 김금희, 김연년, 유훈석, 이를을 받치지 않은분(각 1천원), 이를을 받치지 않은분(6백원), 김정순(3백원), 안순부(2백원)
  - 계 12,600원 누계 603,850원, 감사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20,20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예비자 교리 (공식 미사후, 월.화 오후 7시반)
2. 주일금 배가 운동에 적극 참여 합니다.
3. 성지가지 (26일까지 사무실에 반납하십시오)
4. 애령회 수지 현황
  - 수입 (3,570원)-지출(3,060원)=(잔액510원)
  - 기금 조성을 위한 성미운동 (다음주부터)에 적극 참여합니다.
5. 애프 마련에 협조하신 분 (목표액 7만원)
  - 지난 주 완납...본당 소속 해성학교 교사(10,500원)
  - 김상철(2천원), 김동년(1,500원), 장준식(1천원)
  - 김종원, 정연희, 최덕배(각5백원), 김용식(2백원)
  - 부족액 6,600원
  - 지난 주일 봉헌금 5,36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예비자 교리 (매 주일 공식 미사후, 저녁미사후, 수 저녁미사후)
2.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25일<월>까지)
3. 방지거 3회 (오후 1시반)
4. 성가대 총회 (25일<월> 10시; 사제관)
5. 가정방문 (누락된 가정의 신고 바람)
  - 27(화)-서완산동 (이헌재, 고태석씨 구역)
  - 28(수)-서완산동 (조은석씨 구역)
6. 주일학교 운영에 협조합니다.
  - ① 1일 교장제도 실시
  - ② 신입생 모집 (다음주부터 교리 실시)
  - ③ 교사들의 가정 방문 (3월초부터)
  - 지난 주 성미 5되 (헌금 누계 18,235원)
  - 지난 주일 봉헌금 36,406원, 감사합니다.